

美, 中 선박에 입항수수료 부과 K-석화, 틈새 수출로 '반사이익'

중국 선박의 수출입비용 높아져
국내 기업서 공급우위 선점 여지
美 석화 제품값 30% 인상 전망도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매기기로 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이어 석화업계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제품의 수출 비용 급증으로 미국 진출이 제한될 경우 대체 공급처로 국내산 제품이 현지에서 입지를 넓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7일 중국 국적 선사 또는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4일부터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해당 선박에 대해 선 운수 1톤당 18달러(약 2만5000원), 컨테이너선의 경우 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약 120달러(약 17만원)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해당 수수료는 단계적으로 인상돼 오는 2028년부터는 수수료가 250달러(약 35만 5000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이에 선박 운송을 기반으로 하는 석화 제품의 글로벌 유통 구조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휘발유, 디젤, LPG 등 석유제품은 주로 탱커나 LPG선을 통해 수출되며 석화 제품 중 에틸렌은 기체 또는 압축액화 형태로 LPG-LNG 선박 개조 선박을 이용해 운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석화 제품 운송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중국산 선박 이용에 따른 수출입 비용이 높아지면서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 전경. /SK이노베이션

약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수출 여건이 유리한 국내 석화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석화 제품 전체 수출물량 중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인 43억달러 규모로 중국(36.9%)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운송 환경 변화에 따라 공급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기회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 사용료 부과 방안이 오히려 미국 석화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석화제품 운송수 대서양 횡단이나 중동,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을 위해 글로벌 해운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들 해운사 상당수가 중국 선박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미국의 LPG를 선적한 V LGC 총 293척 중 19%가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S&P 글로벌은 이번 항만 수수료 부과 조치로 인해 미

국 석화제품 수출 가격이 평균 30% 가량 인상될 수 있으며 특히 소형 선박이 운항하는 단거리 항로의 경우 운송비가 최대 7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 정책 전반기 국내 석화기업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시로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주력 제품인 NB 라텍스는 주로 고무장갑 제조에 사용되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중국산 고무장갑의 점유율이 높았다. 하지만 관세 정책으로 금호석화가 원료를 제공하는 동남아시아산 고무장갑의 미국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업계에 반사이익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이 위축될 것"이라며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흔들릴 경우 일부 품목에서는 국내 기업이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D, 화상회의 번역 '어시스턴트 서비스'

LG AI연구원-LG CNS 협업

LG디스플레이가 개인 업무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자체 개발 AI(인공지능)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업계 최초로 자체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기능을 대거 도입했으며 LG AI연구원과 LG CNS와의 협업으로 안정성과 기술성을 높였다.

LG디스플레이가 선보인 AI 어시스턴트는 '화상회의 자동 통번역'과 'AI 회의록 자동 작성' 등을 지원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일평균 업무 생산성을 이전 대비 약 10% 향상시킨다. 임직원은 하루 표준 근무시간 8시간 중 약 50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LG디스플레이는 AI 어시스턴트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여 3년 내 업무 생산성을 30% 이상 높여간다는 방침이



LG디스플레이 직원이 업계 최초로 도입한 AI 어시스턴트 서비스의 자동 통번역 기능을 이용해 유럽 및 베트남 법인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다. 상반기에는 '이메일 AI 요약', 자연어 기반 지표 분석 등의 '데이터 처리 기능'을 추가한다. 하반기에는 보고용 PPT 초안까지 작성해 주는 '문서 작성 어시스턴트 기능' 등 보다 고난이도의 AI 업무로 확장해 성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AI 두뇌역할을 하는 LLM(대형언어모델)은 LG AI 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엑사원(EXAONE) 3.5'를 활용했다. /양성운 기자 ysw@

HS효성첨단, 친환경 탄소섬유 중합 성공

美 투자 스타트업 '트릴리엄사'
기존대비 약 25% 탄소발자국 감축

HS효성첨단소재가 지구의 날을 앞두고 친환경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 2022년부터 투자한 미국의 화학 기술 스타트업 트릴리엄사가 식물성 원료로 만든 친환경 바이오 아크릴로니트릴(ACN)을 100% 바이오 기반 우주항공 등급 폴리 아크릴로니트릴(PAN)로 중합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기존 석유계 프로필렌 원료가 아닌 트릴리엄사의 바이오 아크릴로니트릴로 고성능 탄소섬유를 생산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식물 기반 원료로 우주

항공 등급 등의 고성능 탄소섬유를 생산하게 되면 기존 프로필렌 탄소섬유 대비 약 15~25%의 탄소 발자국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부 산출 결과 예측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바이오 기반 고성능 탄소섬유는 자동차, 항공, 에너지,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될 수 있어 HS효성첨단소재의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가능하다.

성낙양 HS효성첨단소재 대표는 "HS효성첨단소재는 100% 바이오 기반 탄소섬유 상용화를 넘어, 당사가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 전반을 친환경·바이오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며 "친환경 첨단소재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잡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국남동발전 등 43곳 동반성장 '최우수'

중기부, 134개 공공기관 평가
중부발전, 5년연속 '최우수' 받아
석탄공사 등 18곳은 '개선필요'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한국남동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43개 기관이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대한석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인문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등 18개 기관은 최하위인 '개선필요' 등급에 머물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해 절대 평가 방식으로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 5개 등급으로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 결과 최우수 43곳, 우수 30곳, 양호 29곳, 보통 14곳, 개선 필요 18곳으로 각각 나타

났다.

한국중부발전은 5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다. 4년 연속 최우수 등급도 국민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0곳에 달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우수'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은 73곳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33개 기관은 등급이 상승했고 19개 기관은 전년보다 하락했다. 8개 기관은 평가 참여 이후 최우수 등급에 처음 진입했다.

중기부 산하기관 중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최우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우수를 각각 받았다.

최우수 등급 기관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은 발전소 협력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 응이손 발전소 등 해외 발전소에 발전소 기자재 등 중소기업 제품을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또 17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해외 바이

어와의 수출 상담회(1·11월)를 개최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과 제주에 '나라ON 시니어일터'를 설치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시니어 취업을 연계하는 지역 상생형 고용 모델을 구축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을 항만 물류 분야 기술 실증 공간으로 조성해 해상 네비게이션 앱 및 여객터미널 스마트조명시스템 개발, 사물인터넷(IoT)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등 항만 물류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기여했다.

한국동서발전은 탈석탄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 아울러 에너지 혁신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4월)를 여는 등 중소기업의 미래 산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소진공, 전통시장·소상공인 판로확대 지원

상인·수퍼연합회와 업무협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8일 대전본부에서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전통시장·중소물류 우수상품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 우수상품 발굴 및 홍보 ▲우수상품 판로 확대 ▲공동도매물류센터·디지털 통합물류시스템을 활용한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진공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우수상품 개발·홍보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구축 예정인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을 기반으로 공동구매를 확산해 전통시장 상품은 동네수퍼로, 동네수퍼 상품은 전통시장으로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판로 확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전상연은 17개 시·도지회의 협업을 바탕으로 전통시장 우수상품 발굴 및 개발을 위한 품질기준 마련해 공동물



(왼쪽부터)이충환 상인연합회장,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 송유경 수퍼연합회장이 지난 18일 소진공 대전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류 참여 독려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수퍼연은 지역별 협동조합을 통해 전통시장 우수상품의 검증 및 유통 기획, 공동 물류 등을 지원한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협약을 통해 전통시장과 동네수퍼가 상생하며 우수상품을 발굴하고 판로 확대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전통시장과 동네수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